

한국 경제활동 남성의 구강건강행동 및 관련요인

남궁은정, 마득상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학교실 및 구강과학연구소

Oral health behaviors of Korean male workers and related factors

Eun-Jung Namkoong, Deuk-Sang Ma

Department of Preventive Public Health Dentistry, College of Dentistry,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of Oral Science, Gangneung, Korea**Received:** November 17, 2016
Revised: December 14, 2016
Accepted: December 23, 2016**Corresponding Author:** Deuk-Sang Ma
Department of Preventive Public
Health Dentistry, College of Dentistry,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7 Jukheon-gil, Gangneung 25457, Korea
Tel: +82-33-640-2983
Fax: +82-33-642-6140
E-mail: mads@gwnu.ac.kr**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oral health behaviors of Korean male workers and analyze the variables affecting oral health behavior.**Methods:**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2014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NES), from which 1,341 male workers who answered the questionnaires were selected. The data were analyzed by chi-squared test and logistic regression using PASW Statistics 18.0 (SPSS Inc., Chicago, IL, USA), and 95% confidence intervals were comput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assess the relationship between oral health behaviors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Results:** Oral health behaviors varied according to the male worker's job. Brushing teeth two or more times a day varied with levels of stress. The prevalence of people who use supplementary oral hygiene devices was 49.5%. It was increased in male workers with a spouse or high educational level ($P < 0.05$). In addition, office workers were more likely than laborers ($P < 0.05$) to use a supplementary oral hygiene device. The prevalence of people who brush their teeth before sleep was 41.8%. Young male workers (20-39 years old) were more likely to brush their teeth before sleep than senior workers (≥ 60 years old) ($P < 0.05$).**Conclusions:**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lan to promote an interest in dental hygiene in laborers and those who work in the agricultural and fishing industries. Oral health education, oral health programs, campaigns, oral check-up systems, and improvements in working environments are needed to improve the oral health behaviors of male workers.**Key Words:** Male, Oral health behaviors, Worker

서론

통계청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 남성의 74.5%는 경제활동을 주도하는 생산적 인구로서 하루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내고 있다¹⁾. 근로자 개인의 건강은 전체 인구집단의 생산성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가 되며, 이는 경제발전의 중요한 근원이 된다²⁾. 구강건강은 전신건강과 관련이 있으며³⁾, 근로자의 구강건강행동은 개인의 구강건강증진 뿐 아니라 전체의 건강한 생활양식 구성에 기

여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구강보건과 성인구강보건의 핵심 대상은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행동실천이 이루어져야 하며, 구강병이 발생하였다면 초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직장에서는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에 대처하고 스스로 만족하는 기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다양한 압력과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심리적, 신체적 장애 뿐 아니라 부적

절한 생활습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5,6)}, 상대적으로 구강건강에 관심을 두기 어려울 수 있다⁷⁾.

현대에 이르러 여성학의 발달과 관심으로 여성의 구강건강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남성만을 대상으로 한 구강건강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일부 근로자 등에 국한되어 있다⁸⁻¹⁴⁾. 현대사회에서 남성은 직장 조직의 일원으로서 각자가 맡은 직업인으로서의 책무와 가정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¹⁵⁾. 따라서 이들의 건강행동을 도모하는 것은 개인의 건강 뿐 아니라 가정, 사회의 건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국 규모의 표본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경제활동 남성의 구강건강행동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이 있는 요인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경제활동 남성의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을 알리고, 이들의 구강건강관리와 증진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제 6기 2차년도(2014년) 원시자료를 제공받아 활용하였다. 제 6기 2차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질병관리본부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승인(2013-12EXP-03-5C)을 받아 수행되었다. 건강 설문에 응답한 만 20세 이상 성인 남성 중 경제활동 중인 인구 1,477명을 분류하였고, 이 중 무응답은 결측치로 처리한 뒤 1,341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연구방법

2.1. 변수선정

일반적 특성 변수는 연령, 교육수준, 월평균 개인소득, 지역구분, 배우자 유무, 스트레스, 주관적 구강건강인식을 선정하였다. 연령은 청년층(20-39세), 장년층(40-59세), 노년층(60세 이상)으로 분류하였고, 교육수준은 고졸이하와 전문대졸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개인소득은 사분위수에 근거하여 200만원초과와 200만원 이하로 구분하였다. 지역구분은 동, 읍면으로 분류하였고, 결혼상태는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미혼, 이혼, 사별, 별거 등)로 구분하였다. 직업군은 한국표준직업분류 코드에 따라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기능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로 분류하였다. 스트레스는 느끼는 경우와 느끼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고, 주관적 구강건강인식은 좋음, 보통, 나쁨으로 분류하였다.

구강건강행동 변수는 보조구강위생용품 사용, 최근 구강검진, 하루 2회이상 잇솔질, 자기 전 잇솔질을 선정하였다. 보조구강위생용품 사용은 치실, 치간칫솔, 양치용액, 전동칫솔, 워터픽, 혀클리너, 칩단칫솔, 틀니관리용품 중 한 가지 이상 사용하는 경우로

하였다. 최근 구강검진은 1년 이내에 구강검진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하였다. 하루 2회이상 잇솔질은 하루 잇솔질 시기 중 두 번 이상 잇솔질하는 경우로 하였고, 자기 전 잇솔질 실천은 매일 자기 전에 잇솔질하는 경우로 하였다.

2.2. 분석방법

자료는 PASW Statistics 18.0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계층변수는 분산추정, 군집변수는 조사구번호, 표본 가중값은 건강설문가중치를 고려하여 분석계획파일을 생성한 뒤 복합표본분석(Complex Sampling analysis)을 시행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행동의 차이는 교차분석을 시행하였다. 구강건강행동의 요인별 영향력의 정도는 구강건강행동을 종속변수로 하는 단계별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판정을 위한 유의수준(α)은 0.05로 설정하였다.

연구성적

1. 경제활동 남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행동

전체 대상자 1,341명 중 보조구강위생용품 사용율은 49.5%(648명), 최근 구강검진율은 30.4%(405명), 하루 2회 이상 잇솔질 실천율은 88.9%(1,164명), 잠자기 전 잇솔질 실천율은 41.8%(499명)으로 나타났다. 보조구강위생용품 사용율은 연령, 교육수준, 거주 지역, 배우자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최근 1년내 구강검진율은 교육수준, 월평균 개인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하루 2회 이상 잇솔질 실천율은 연령,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5$), 잠자기 전 잇솔질 실천율은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Table 1).

2. 경제활동 남성의 직업, 스트레스, 주관적구강건강인식에 따른 구강건강행동

경제활동 남성의 직업, 스트레스, 주관적구강건강인식에 따른 구강건강행동은 Table 2와 같다. 보조구강위생용품 사용율은 직업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5$), 하루 2회이상 잇솔질 실천율은 직업군, 스트레스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잠자기 전 잇솔질 실천율은 직업군, 주관적구강건강인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3. 경제활동 남성의 보조구강위생용품 사용에 대한 관련요인

경제활동 남성의 보조 구강위생용품사용에 대한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 추정값은 Table 3과 같다. 보조구강위생용품 사용과 관련이 있는 요인은 경제활동 남성의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직업군으로 나타났다($P<0.05$). 고졸이하에 비해 대졸이상이 1.68배, 배우자가 있을 경우 2.35배 보조구강위생용품사용율이 높았으며, 직업군에 따라서는 단순노무업에 비해 사무업이 보조 구강위생용품사용율이 2.44배 높았다($P<0.05$).

Table 1. Oral health behaviors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haracteristics	N (wt%)	Use supplementary oral hygiene devices		Oral checkup in the past year		Toothbrushing two or more times a day		Toothbrushing before sleep	
		Yes	No	P-value	N (wt%)	Yes	No	P-value	N (wt%)
Age									
20-39	402 (100.0)	217 (52.6)	185 (47.4)	<0.001	118 (29.4)	369 (92.2)	33 (7.8)	<0.001	209 (54.5)
40-59	613 (100.0)	321 (53.3)	292 (46.7)		206 (32.3)	541 (88.7)	72 (11.3)		219 (36.2)
≥60	326 (100.0)	110 (32.7)	216 (67.3)		81 (25.9)	254 (79.7)	72 (20.3)		71 (24.7)
Total	1,341 (100.0)	648 (49.5)	693 (50.5)		405 (30.4)	1,164 (88.9)	177 (11.1)		499 (41.8)
Education level									
≤High school	776 (100.0)	312 (42.4)	464 (57.6)	<0.001	202 (26.8)	648 (87.0)	128 (13.0)	0.038	243 (37.6)
≥College	564 (100.0)	335 (60.6)	229 (39.4)		203 (34.8)	515 (91.3)	49 (8.7)		255 (47.0)
Total	1,340 (100.0)	647 (49.5)	693 (50.5)		405 (30.4)	1,163 (88.9)	177 (11.1)		498 (41.8)
Monthly income (KRW)									
≤2,000,000	982 (100.0)	464 (49.3)	518 (50.7)	0.195	276 (27.9)	844 (87.9)	138 (12.1)	0.069	365 (41.7)
>2,000,000	357 (100.0)	184 (54.0)	173 (46.0)		129 (37.3)	318 (91.7)	39 (8.3)		134 (42.0)
Total	1,339 (100.0)	648 (49.4)	691 (50.6)		405 (30.4)	1,162 (88.9)	177 (11.1)		499 (41.8)
Area of residence									
City	1065 (100.0)	555 (54.1)	510 (45.9)	<0.001	339 (31.5)	934 (89.1)	131 (10.9)	0.651	413 (42.2)
Rural	276 (100.0)	93 (33.7)	183 (66.3)		66 (25.2)	230 (87.9)	46 (12.1)		86 (39.8)
Total	1,341 (100.0)	648 (49.5)	693 (50.5)		405 (30.4)	1,164 (88.9)	177 (11.1)		499 (41.8)
Exist of spouse									
Yes	1093 (100.0)	543 (53.0)	550 (47.0)	0.023	349 (32.0)	952 (89.1)	141 (10.9)	0.715	391 (39.8)
No	248 (100.0)	105 (42.7)	143 (57.3)		56 (25.2)	212 (88.2)	36 (11.8)		108 (48.0)
Total	1,341 (100.0)	648 (49.5)	693 (50.5)		405 (30.4)	1,164 (88.9)	177 (11.1)		499 (41.8)
Jobs									
Executives, Expert	293 (100.0)	176 (59.9)	117 (40.1)	<0.001	111 (37.8)	267 (90.1)	26 (9.9)	0.001	124 (48.3)
Office workers	232 (100.0)	129 (58.9)	103 (41.1)		74 (30.5)	213 (93.0)	19 (7.0)		100 (42.4)
Service workers	185 (100.0)	99 (51.0)	86 (49.0)		49 (25.7)	162 (90.6)	23 (9.4)		77 (47.8)
Agriculture, fishing industry	144 (100.0)	39 (30.7)	105 (69.3)		32 (23.3)	104 (74.2)	39 (25.8)		29 (20.8)
Functional, mechanical workers	342 (100.0)	154 (46.0)	188 (54.0)		101 (30.1)	298 (88.5)	44 (11.5)		124 (38.6)
Labors	145 (100.0)	51 (35.2)	94 (64.8)		38 (25.5)	119 (86.1)	26 (13.9)		45 (37.1)
Total	1,341 (100.0)	648 (49.5)	693 (50.5)		405 (30.4)	1,163 (88.9)	177 (11.1)		499 (41.8)

P-values are determined by chi-squared test.

Table 2. Oral health behaviors according to stress, perceived oral health status

Characteristics	Total	Use supplementary oral hygiene devices		Oral checkup in the past year		Toothbrushing two or more times a day		Toothbrushing before sleep	
		Yes	No	P-value	N (wt%)	Yes	No	Yes	No
Total	1,341 (100.0)	648 (49.5)	693 (50.5)		405 (30.4)	936 (69.6)		499 (41.8)	842 (58.2)
Stress									
Yes	1,128 (100.0)	87 (47.4)	126 (52.6)	0.445	344 (30.2)	784 (69.8)	0.702	65 (35.1)	148 (64.9)
No	213 (100.0)	561 (49.0)	567 (51.0)		61 (31.8)	152 (68.2)		434 (42.7)	694 (57.3)
Perceived oral health status									
Healthy	201 (100.0)	96 (48.9)	105 (51.1)	0.283	68 (31.1)	133 (68.9)	0.883	66 (39.8)	135 (60.2)
Moderate	516 (100.0)	268 (53.5)	248 (46.5)		156 (29.5)	360 (70.5)		216 (46.8)	300 (53.2)
Unhealthy	624 (100.0)	284 (47.7)	340 (52.3)		181 (30.9)	443 (69.1)		217 (38.1)	407 (61.9)

P-values are determined by chi-squared test.

4. 경제활동 남성의 최근 구강검진에 대한 관련요인

대상자의 최근 구강검진실천에 대한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 추정값은 Table 4와 같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소득이 높을수록 최근 구강검진율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5. 경제활동 남성의 하루 2회이상 잇솔질에 대한 관련요인

경제활동 남성의 하루 2회이상 잇솔질실천에 대한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 추정값은 Table 5와 같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단순 노무업에 종사하는 남성에 비해 사무업에 종사하는 남성이 실천율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6. 경제활동 남성의 매일 잠자기 전 잇솔질에 대한 관련요인

경제활동 남성의 잠자기 전 잇솔질에 대한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 추정값은 Table 6과 같다. 잠자기 전 잇솔질 실천과 관련이 있는 요인은 경제활동 남성의 연령, 주관적구강건강인식으로 나타났다($P<0.05$). 노년층에 비해 청년층이 3.61배, 주관적구강건강 인식이 나쁜 사람에 비해 보통인 사람이 1.67배 잠자기 전 잇솔질 실천율이 높았다($P<0.05$).

고 안

남성 근로자들은 직장 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과중한 업무와 책임, 가정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역할들로 인하여 피로수준이 높고^{16,17}, 상대적으로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 일부 성인 남성 근로자의 건강증진행위실천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의 보고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건강증진행위실천에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¹⁸. 또한 일부 남성 근로자의 구강건강행태 및 구강건강상태에 대한 보고에서는 70.6%가 구강검진을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⁹.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남성의 74.5%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인구로서¹, 남성 근로자의 건강한 행동은 성인 남성의 건강한 생활양식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겠다. 남성 근로자의 건강관리는 질환으로 인한 근로 손실을 줄임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산업의 발전을 이끌며², 나아가 가정과 사회의 건강에 공헌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경제활동 남성만을 대상으로 구강건강행동을 확인한 바, 보조구강위생용품 사용율은 49.5%, 최근 구강검진율은 30.4%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 성인의 구강검진율은 29.4%로서²⁰, 본 연구에서 조사한 경제활동 남성의 구강검진율과 근사한 수치이다. 직장에서의 구강검진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성인 남성의 구강검진 실천율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경제활동 남성의 잇솔질 실천율은 하루 2회 이상 잇솔질 실천율이 88.9%, 자기 전 잇솔질 실천율이 41.8%로, 취침 전 시기에서의 잇솔질 실천율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구강보건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구강위생용품 사용, 하루 2회이상 잇솔질 실천율, 자기 전 잇솔질 실천율은 모두 직업군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P<0.05$), 특

Table 3. Logistic regression model estimation to rate of people who use supplementary oral hygiene devices

Characteristics	β	S.E.	P-value	OR		
				Exp (β)	95% CI	
Age						
20-39	0.409	0.291	0.161	1.506	0.848	2.673
40-59	0.365	0.239	0.129	1.440	0.899	2.309
≥60	Ref.					
Education level	0.520	0.190	0.007	1.682	1.155	2.450
Area of residence	0.398	0.212	0.062	1.488	0.980	2.260
Exist of spouse	0.855	0.267	0.002	2.351	1.387	3.984
Jobs						
Executives, Expert	0.307	0.392	0.434	1.360	0.627	2.947
Office workers	0.894	0.368	0.016	2.444	1.182	5.051
Service workers	0.419	0.304	0.170	1.520	0.834	2.769
Agriculture, fishing industry	0.010	0.380	0.980	1.010	0.477	2.138
Fuctional, mechanical workers	0.085	0.289	0.770	1.089	0.615	1.928
Labors	Ref.					

Reference: ≥60, ≤High school, Rural, Spouseless, Labors.

Table 4. Logistic regression model estimation to rate of people who have oral checkups

Characteristics	β	S.E.	P-value	OR		
				Exp (β)	95% CI	
Education level	0.281	0.174	0.108	1.324	0.940	1.866
Monthly income	0.110	0.233	0.636	1.117	0.705	1.769

Reference: ≤High school, ≤2,000,000.

Table 5. Logistic regression model estimation to rate of people who brush teeth two or more times a day

Characteristics	β	S.E.	P-value	OR		
				Exp (β)	95% CI	
Age						
20-39	0.069	0.358	0.847	1.072	0.528	2.175
40-59	0.293	0.277	0.291	1.340	0.776	2.316
≥60	Ref.					
Education level	0.464	0.238	0.053	1.590	0.994	2.545
Jobs						
Executives, Expert	0.087	0.664	0.896	1.091	0.294	4.049
Office workers	0.154	0.521	0.768	1.167	0.417	3.263
Service workers	0.190	0.441	0.666	1.210	0.507	2.888
Agriculture, fishing industry	-0.591	0.373	0.115	0.554	0.265	1.157
Fuctional, mechanical workers	0.043	0.372	0.907	1.044	0.501	2.178
Labors	Ref.					
Stress	-0.400	0.290	0.170	0.670	0.378	1.189

Reference: ≥60, ≤High school, Labors, Yes.

히 전문업, 사무업 등을 비롯한 다른 직업군에 비하여 및 단순노무업 및 농림 · 어업 · 숙박업에 종사하는 남성에게서의 구강건강행동 실천율이 뚜렷하게 낮게 나타나, 이들을 위한 관심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이 직업군에서 구강건강행동 실천율이 현저히 낮게 나타난 것은 다양한 요인이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 유추하며, 이후의 후속연구를 통해 단순노무업 및 농림 · 어업 · 숙박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구강건강행태와 관련요인에 관하여 세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을 경우, 단순노무업에 종사하는 남성에 비해 사무업에 종사하는 남성이 보조구강위생용품사용 실천율이 높았는데,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가정에서 배우자에 의한 구강위생용품 사용이 대상자의 구강위생용품 사용으로 이어진 것으로 여겨지며, 단순노무업에 종사하는 남성에 비하여 사무업에 종사하는 남성이 구강위생용

Table 6. Logistic regression model estimation to rate of people who brush teeth before sleep

Characteristics	β	S.E.	P-value	OR		
				Exp (β)	95% CI	
Age						
20-39	1.286	0.321	<0.001	3.617	1.917	6.822
40-59	0.115	0.270	0.670	1.122	0.658	1.914
≥60	Ref.					
Education level	0.135	0.224	0.547	1.145	0.736	1.780
Exist of spouse	0.080	0.237	0.736	1.083	0.678	1.732
Jobs						
Executives, Expert	-0.037	0.399	0.925	0.963	0.438	2.119
Office workers	0.037	0.436	0.933	1.037	0.438	2.457
Service workers	0.189	0.358	0.599	1.208	0.595	2.450
Agriculture, fishing industry	-0.645	0.418	0.125	0.525	0.230	1.198
Fuctional, mechanical workers	-0.050	0.324	0.877	0.951	0.501	1.804
Labors	Ref.		0.535			
Perceived oral health status						
Healthy	0.166	0.268	0.535	1.181	0.696	2.004
Moderate	0.518	0.178	0.004	1.679	1.181	2.389
Unhealthy	Ref.			1.000		

Reference: ≥60, ≤High school, Spouseless, Labors, Unhealthy.

품사용 실천율이 높은 것은 구강위생을 관리할 수 있는 화장실 환경 등이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는 횡단면연구이므로 일부 한계점을 지닐 수 있다. 하지만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한 대표성이 있는 자료로서 우리나라 경제활동 남성만을 대상으로 구강건강행동을 파악하고 영향이 있는 변인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함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건강행위실천에는 근로자의 건강을 위한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²¹⁾. 따라서 경제활동 남성의 구강건강행동 실천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직장에서 근로자의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을 도모하고 구강건강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과 검진 서비스 및 구강보건교육의 확충이 되어야 하겠다.

결 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20세 이상 경제활동 남성의 구강건강행동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고자,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6기 2차년도(2014년)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복합표본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경제활동 남성의 직업군에 따라 보조구강위생용품 사용, 하루 2회이상 잇솔질, 자기 전 잇솔질에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였고, 스트레스 유무에 따라 하루 2회이상 잇솔질에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2. 보조구강위생용품 사용은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직업군이 관련이 있으며, 자기 전 잇솔질 실천은 연령, 주관적구강건강인식 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단순노무업 및 농업·어업·숙련업에 종사하는 남성들이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남성에 비하여 구강건강행동을 실천하는 비율

이 낮으므로 이 직업군에서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활동 남성을 대상으로 한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구강건강관련 캠페인을 통해 의식을 고취시켜 동기를 강화하여야 하겠다. 또한 잇솔질 실천을 위한 직장 환경 개선과 함께 직장 구강검진 프로그램이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References

1. Statistics Korea. Korea Statistical Information System(KOSIS), Statistics DB, Employment [Internet]. [cited 2016 Oct 12]. Available from: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B#SubCont.
2. Kim JB, Chang KW, Hwang YS, et al. Oral health education. 4th ed. Seoul: Komoonsa, 2010;3-19.
3. Kang HK, Jang KA. Relationship between the oral health, oral health impact profile-14 and total health index of male workers. J Dent Hyg Sci 2013;13:13-20.
4. Song JR, Oh HW, Lee HS. Workers' oral health behaviors and need for education in Iksan city. J Korean Acad Oral Health 2007;31:91-102.
5. Jung MK. Relationship between occupational stress and health-related behaviors in middle-sized manufacturing workers [master's thesis]. Seoul:Yonsei University;2006. [Korean].
6. Cho HJ, Cho MH, Jo YJ, Jang YE, Jeon EH, Jeong BL, et al. The influence of occupational stress in dry mouth and self-diagnosed oral symptoms on workers. J Dent Hyg Sci 2012;12:634-643.
7. Kim AJ. The effect of job stress and degree of dry mouth on OHIP-14 in industrial workers [master's thesis]. Jeollabuk-do:Wonkwang University;2012. [Korean].
8. Choi CH, Kim BI, Kwon HK. Dental erosion prevalence and risk factors in galvanizing and battery manufacture factory workers. J Korean Acad Oral Health 2002;26:535-554.

9. Choi MH, Oh HW, Lee HS. A comparative study on the oral health behaviors between medical and non-medical workers. *J Korean Acad Oral Health* 2009;33:552-563.
10. Seo HS, Park GS. The study on the oral health status and behavior of industrial workers at Choong-Nam province, South Korea. *J Korean Acad Oral Health* 2003;27:641-653.
11. Woo HS, Kim DK. The effect of TBI on PHP index of workers need scaling. *J Korean Acad Oral Health* 2010;34:65-71.
12. Jung JO, Bae SM, Song KS. Research into some company workers' awareness of the hygiene of the mouth and their practice of it. *J Dent Hyg Sci* 2008;8:21-27.
13. Kim SJ, Lee BJ. A association between self-reported oral health and oral health status among Korean male soldiers aged 18-24. *J Korean Acad Oral Health* 2012;36:282-288.
14. Cha JD, Jang KA. Related factors and oral health status of some manufacturing workers. *J Korean Acad-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1;12:4959-4967.
15. Song JY.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ien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ple roles commit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middle-aged men in preparing for the old age. *J Korean Social Welfare Research* 2009;22:59-81.
16. Park SP, Kwon IS, Cho YC. Job stress and psychosocial factors and its association with self perceived fatigue among white collar male workers. *J Korean Acad-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1;12:301-311.
17. Kim SS. A study on influential factors underlying middle aged men's stress. [master's thesis]. Daejeon:Mokwon University;2001. [Korean].
18. Park SM.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health practice behaviors among male research workers in an automobile company [master's thesis]. Seoul:Korea University;2014. [Korean].
19. An IS, Bahk SW, Lee KS, Jang EJ. The relationship between health behaviors and oral health status of male workers in small and medium industry. *J Korean Acad Dent Tech* 2012;34:25-36.
20. Ministry of health & welfare. Korea health statistics 2014. Chungcheongbuk-do:Ministry of Health & Welfare;2014:279.
21. Jung SH. New dental public health. 1st ed.Seoul:Koomonsa; 2012:1-391.